

반도체 의인화... SK하이닉스 광고 '올 최고작'

PR캠페인 '2018 한국광고대상' 수상

메모리 반도체를 의인화한 SK하이닉스의 기업PR 캠페인이 올해 최고의 광고 작품으로 선정됐다.

한국광고총연합회는 오는 23일 2018 한국 광고대회를 열고 52개 작품을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으로 시상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미디어 부문에서 대상은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만든 SK하이닉스 기업 PR 캠페인이 선정됐다. 방송광고 부문에서도 이노션이 만든 SK텔레콤의 기업PR '소방관·경찰관' 편이 대상을 받았다.

동영상 광고와 옥외광고, 디자인 부문에서는 제일기획이 만든 부산지방경찰청 '스파다 운로드킬', 네파 '비가 오면 자라나는 특별한 나무 레인 트리', 삼성화재 '꽃병소화기 Fire vase'가 대상을 차지했다.

프로모션 부문에서는 대흥기획이 제작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만든 SK하이닉스 기업 PR 캠페인.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통합미디어 부문 대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처음처럼 '마이라벨 프로모션',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는 HS애드의 정의기억연대 '언컴포트 우먼 프로젝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광고총연합회는 신동엽씨에게 광고인이 뽑은 최고의 광고모델상을 수여한다. 롯데렌터카와 여기어때 등 광고에 출연했었다.

심사를 맡은 정상국 전 LG전자 부사장은 "올해 작품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광고가 눈에 띄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각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작품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열과 독소 배출엔 '어성초'



김소영 박사
본초 테라피

어성초(魚腥草)의 한자 뜻을 풀어 보면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풀'이다. 습한 곳에서 자라며 이름처럼 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냄새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본초가 바로 어성초이다.

어성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해독 및 청열 작용이다. '해독초'로 부를 정도로 해독작용이 강하며 피부에 쌓인 열을 내려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고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어성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항염, 항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트러블의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손상시키는 각종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며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서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 따라서 여드름을 비롯해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

피부에 좋은 어성초는 탈모 예방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은 물론이고 두피의 열, 철분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 혈액 순환 저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 현대인들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두피의 열이 증가하면서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

두피에 열이 많이 쌓이면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 두피가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두피의 열을 식혀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어성초가 도움이 된다.

어성초를 화상수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알코올에 담가 6개월 정도 두어 약효가 충분히 우려난 후에 사용하면 된다. 어성초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여성들의 질염이나 방광염 등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말린 어성초는 물에 넣어 끓이면 비린내도 사라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말린 어성초는 차로 끓이기 전에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준 후에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 대형 항공사 최초 전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대한항공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체질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국내 대기업 및 전세계 대형 항공사로는 최초로 전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LG CNS 및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업무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 장정욱 AWS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더욱 치열해지는 항공산업 경쟁 속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선택하게 됐다"며 "향후 클라우드를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LG CNS 및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업무 체결식을 개최했다. 에드 렌타 AWS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디렉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왼쪽부터)이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김상희의四季

풍수 인테리어는 삶의 지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서 추출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에 복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복을 부르려고 집을 지을 땐 대문의 방위를 살폈고 방의 위치도 함부로 정하지 않았다. 집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고 많은 신경을 쓴다. 옛사람들이 집안 구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요즘으로 비교하면 집안 인테리어와도 같다.

풍수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복된 기운을 부르는 지혜를 배워 자기의 집에 적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아파트 생활이 많아 획일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집안풍수에 따라 복은 달라진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손쉬운 방법은 색상 인테리어이다. 색상은 그저 하나의 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커튼의 색깔을 바꾸거나 벽지를 다른 색으로 하면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활기찬 느낌이 든다. 각각의 색이 뽐어내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커튼이나 가구 일부를 노란색으로 바꾸어 불만하다. 노란색은 흘러지는 재물을 담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들 땐 녹색 벽지가 좋다.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연업을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걱정이라면 빨간색을 권한다. 빨간색은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는 기운이 있다. 현관은 사람의 출입구이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출입구이다.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명이 환하게 설치해서 복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듯 분위기를 연출하면 좋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인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풍수를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9월 30일) <http://www.saju4000.com>

<p>쥐</p> <p>4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6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빙빙 도는 하루. 72년생 노력한 보람이 주어지지 보람을 느낀다. 8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p>	<p>말</p> <p>54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자. 66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 대화가 필요. 78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90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아라.</p>
<p>소</p> <p>4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61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73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5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 노력.</p>	<p>양</p> <p>55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67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만 측정. 79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 9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중심을 잡아라.</p>
<p>호랑이</p> <p>50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 62년생 1%만 상대를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74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6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러니 즐거운 하루.</p>	<p>원숭이</p> <p>56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6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0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92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p>
<p>토끼</p> <p>51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63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75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전이 필요. 87년생 게르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p>	<p>닭</p> <p>57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 6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다. 81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 93년생 두 가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해야 할 것.</p>
<p>뱀</p> <p>52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64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76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오늘은 자중해야. 88년생 직장에서 소식이 오니 바라던 일이다.</p>	<p>개</p> <p>58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7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82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4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p>
<p>돼지</p> <p>53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65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77년생 때로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8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해 보자.</p>	<p>돼지</p> <p>59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의 화목에 있다. 71년생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83년생 자녀에게 지나간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95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p>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6			
	2	6		3	5			
		5	9	8				
3	6				8			9
	2						5	
9	4				3			2
		1	7	2				
	7	8		4	1			
6								8

			8	7		2	6	
	1		6		2			8
			1			8		4
4	6						9	7
3		1			4			
8			2	7		4		
	4	9		1	6			

스도쿠 정답

8	2	6	5	9	1	7	3	4
5	1	7	9	8	2	6	4	3
9	6	3	1	5	8	4	7	2
2	1	9	8	7	5	6	3	4
7	5	9	1	6	8	2	4	3
6	8	5	2	9	1	7	3	4
1	2	8	6	5	9	7	4	3
8	6	5	7	9	2	1	4	3
9	7	1	2	6	8	5	3	4
2	8	5	9	1	6	7	4	3
1	7	9	6	2	8	5	3	4
5	2	9	7	8	1	6	4	3
4	6	1	8	5	9	7	3	2
7	8	6	9	1	5	2	4	3
8	5	7	2	9	1	6	4	3
6	9	2	1	8	7	5	4	3
9	1	4	5	7	6	2	8	3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8호